

다케코마이나라리 신사

셋타야 지구에 있는 이 이나라리 신사의 입구에는 신사를 대표하는 한 쌍의 여우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암여우 대신 어미 여우와 새끼 여우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도에서 이나라리는 풍작과 관련이 있으며, 오탁 풍작이나 지역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여우는 신의 사자로 간주되어 자연 속에서 발견한 경우는 이나라리가 보낸 계시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나라리 신사 밖에는 여우 조각상이 신의 사자로서 안치되어 있으며, 참배자와 이나라리 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미 여우가 새끼 여우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사실 그 반대의 의미를 지녔다고 지적합니다. 그 말은 즉 새끼가 모친을 쳐다보며 ‘엄마, 날 지켜줘. 내가 크면 엄마를 지켜줄게’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부모자식관계는 다른 신사나 일본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있어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 신사는 그러한 점에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다케코마이나라리 신사는 지역 사회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신사에는 당연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깃들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원하면 행운, 오탁 풍작, 장사 번성, 자식 순산 등이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